

북한을 위한 기도

2026년 8월



1.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초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헌법에는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조항이 신설되고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장에게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명기하고 명목상의 견제 사항마저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을 살펴볼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대결 구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북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반도 통일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우리 사회에 통일과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의 기반이 되어 온 민족에 대한 의식이 사회적으로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통일과 민족 개념을 모두 폐기하면서 통일이 오히려 평화와 충돌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닐 것이기에, 통일을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통일과 평화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반도 전역을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하는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교회가, 이러한 뿌리와 자산을 잘 지키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선교 현장이 변화하는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이 변화하는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8~9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한 북한과 중국은, 뒤이은 잇단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신압록강대교의 북측 세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중국 세관이 향후 해당 대교를 이용할 화물트럭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이 북한 선교의 문이 넓혀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안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주변국 간의 밀착 관계 속에서 선교 현장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 체류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디지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 여름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북중 국경을 방문하는 여행팀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러시아는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을 억류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박 모 선교사님을 체포하여 억류하면서 선교 현장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히 갇힌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갇힌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소식은 우리에게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시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12년만에 귀환한 장문석 집사

6.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어 관련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4대 세습이 기정사실화되고 핵무력까지 다음 세대로 전수하려는 모습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40대 초반에 불과한 김정은이 10대 초반의 어린 딸에게 벌써부터 후계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의 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살길은 권력 세습이 아닌 회개와 변화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든, 북한이 권력 세습에만 집착하기보다 회개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7.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큰 비로 인해 중국 동북지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체류 북한 여성들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이번 수해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많은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이 수해로 인해 경작하는 옥수수밭이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수해가 농작물을 넘어 직접적으로 생활 현장을 위협하여 집을 버리고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수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